

미래 생명자원인 토종씨앗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정책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최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대표되는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토종씨앗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충남 도내 다양한 토종씨앗 보존 활동과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보존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토종씨앗의 개념 및 보존 필요성
2. 토종씨앗 보존정책 현황
3.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활동 현황 및 인터뷰조사
4. 정책 제언

요약

- ◀ 토종씨앗은 우리 기후·풍토에 맞게 적응되어온 씨앗으로 지역에 따라 그 품종이 다양하게 유지·계승되어 왔음
- ◀ 하지만 산업화된 현대농업의 발전으로 토종씨앗은 사라지고 대신 다국적기업 등이 종자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종자주권 상실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이 연구에서는 충남도내 토종씨앗 보존 단체와 토종농사를 짓고 활동하는 농민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조사(부여, 논산, 공주, 홍성, 청양 소재)와 타 지자체의 정책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함
- ◀ 첫째,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정책 과제는 토종자원에 관한 조사 및 체계적 정리, 토종자원의 보관에 대한 지원, 농촌진흥청 등 정부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임
- ◀ 둘째, 토종씨앗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상품화 가능 토종씨앗과 그렇지 못한 토종씨앗의 분리 대응, 토종농산물 재배 장려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임
- ◀ 셋째, 정책적 비전 제시 및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과제는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충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2016년 제정) 수정·보완임

01

토종씨앗의 개념 및 보존 필요성

1. 토종씨앗의 개념

- 토종씨앗은 농민의 손에 의해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게 적응되어온 씨앗으로 지역에 따라 그 품종이 다양하게 유지 계승되어 옴
- 토종씨앗은 지역 고유의 풍토와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 자체적으로도 자신만의 고유한 씨앗을 유지 및 계승해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양한 씨앗들이 보존되어 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등록 유전자원 가운데 순수한 토종은 49,228점으로 전체 보유자원 중 24.0% 정도를 차지(정만철, 2016)
- 그러나 점차 토종씨앗은 사라지고 대신 다국적기업 등이 종자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종자주권 상실과 GMO¹⁾ 등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
 - 종자산업은 단순히 종자 하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먹거리와 건강, 그리고 환경 전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이 글로벌 시장체계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종자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대규모 종자회사들이 미국 등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종자 및 식량주권 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은 지금도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음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식품)이나 가축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을 의미함. GMO는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유해 가능성, 환경 문제, 생물의 다양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음.

2. 토종씨앗 보존의 필요성

- 최근 전국적으로 토종씨앗의 가치를 알리고 보급하는 단체 간 연계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
 - 강원 횡성, 평창, 전북 임실, 완주, 충북 괴산 등에서는 토종씨앗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토종씨앗을 찾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옴. 그 결과 제주, 횡성, 임실, 괴산 등에서는 지역의 토종씨앗 실태조사의 결과를 책으로 펴냄(신지연, 2016)
 -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는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특히 경남도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에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는데, 토종씨앗을 재배할 경우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충남도는 2016년 9월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충남도내에서 홍성 씨앗도서관은 지역 내 토착씨앗을 수집·보급 활동을 하고 있고, 부여군 여성농민회와 부여 토종종자센터에서도 관련 활동을 전개
 - 최근에는 충남도 토종종자네트워크가 결성되어 각 시군을 거점으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간,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 중임
- 충남도 차원에서 토종씨앗의 보존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02

토종씨앗 보존정책 현황

1. 중앙정부

-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은 없음
 - 다만 최근 국가 전체적으로 종자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가치를 증대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종자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정체상태임. 세계 종자산업은 최근 10년간 약 두 배 성장하였고 그 교역량도 급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종자 보존 및 활용을 총괄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이하 센터)임
 - 이 센터에는 50만 개 자원을 30년간 보존할 수 있는 중기보존시설과 50만 개 자원을 100년간 보존할 수 있는 장기보존시설이 있음
 - 또한 30만 개 자원을 영구보존하는 초저온보존시설(수원 소재)과 10만 개 자원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DNA은행 시설(전주 소재)이 있음
- 2016년 8월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 중인 자원은 약 27만점이고 그 중에 토종씨앗(식량, 원예, 특용)은 52,182점
 - 식량작물만 기준으로 했을 시 전체 157,658점 중 토종종은 41,951점으로 26.6%, 원예작물은 전체 27,718점 중 토종종은 3,761점으로 13.6%, 특용작물은 전체 22,274점 중 토종종은 6,470점으로 29.0%를 차지
 -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가 충남지역에서 수집한 토종씨앗을 보면, 보리 787종, 콩 637종, 옥수수 625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참깨 221종, 들깨 84종, 수수 76종이 있음

2. 지방정부

- 최근 들어 각 지자체마다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됨
 - 첫째, 먹거리 안전성 때문임. 토종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최근 GMO 위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둘째, 농가수익 증대방안으로 토종농산물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임. 즉, 일부 토종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내재해성과 내병성에 뛰어나고 희소성으로 인해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적극 활용
 - 셋째, 토종농산물은 건강하다는 인식 때문임. 일반적으로 토종농산물은 개량종보다 특효성분이 많아 몸에 더 좋다는 인식이 있어 시장에서 더 찾는 경우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 보호 때문임. 미래 농업의 성패는 얼마만큼의 유전자원을 확보하는가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둘러 정부차원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유전자원을 발굴 및 관리하기 시작

-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토종농산물을 육성 및 활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중임
 - 각 지자체별 토종농산물 관련(토종가축 포함) 조례 제정·개정 현황을 보면, 2016년까지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2015.1.2), 경기도(2014.10.21), 경상남도(2012.10.4), 전라남도(2011.10.20), 제주특별자치도(2015.10.6), 충청북도(2009.4.10) 등 6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함. 충남도는 2016년 9월 9일 관련 조례를 제정함.
 - 기초지방자치체 가운데에서는 충청북도 괴산군(2016.7.1)이 유일
 - 조례 내용을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4개 지자체는 토종작물재배의 진작을 위해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생산비 보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하지만 이들 지자체 가운데 현재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한 곳 뿐임

03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현황 및 인터뷰조사

1. 현황 및 인터뷰조사 개요

- 충남지역에서 토종씨앗을 사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토종씨앗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실시
 - 인터뷰 대상: 토종씨앗 재배 및 보존 활동 농민 10명 (충남 부여, 논산, 공주, 홍성, 청양 소재)
 - 조사 기간: 2016년 6월~7월
 - 조사 내용: 토종씨앗 재배 현황, 재배 이유와 어려움, 토종씨앗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 조사 방법: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인터뷰 실시

2. 조사 결과

- 토종씨앗 재배 현황을 종합하면, 응답한 농민들은 앓은뱅이밀, 토종벼, 토종콩 등을 가장 많이 재배
 - 이외에도 들깨와 참깨, 고추, 팥, 옥수수, 수수, 무, 배추, 생강, 감자, 오이, 가지 등을 재배

[표 1] 토종씨앗 품종 및 재배 면적

응답자	품종(면적)
①	①콩(1000평), ②고추(2평), ③상추(2평), ④아욱(2평)
②	①참깨(100평), ②토란(자체소비 정도), ③옥수수(자체소비 정도), ④수수(자체소비 정도)
③	①콩(오리알태, 400평), ②콩(퍼령콩, 120평), ③생강(100평)
④	①벼(1,600평), ②콩(500평), ③팥(100평), ④오이(50평), ⑤감자(50평)
⑤	①쌀(흑찰, 벼들벼 1,400평), ②밀(1,000평), ③천년초(200평)
⑥	①얇은뱅이밀(100평), ②노각오이(3평), ③옥수수(10평), ④눈개승마(15평)
⑦	①얇은뱅이밀(500평), ②자광벼(200평), ③옥수수(50평), ④고추(10종, 50평)
⑧	①얇은뱅이밀(800평), ②토종벼(700평), ③키큰찰수수(700평), ④종콩(300평), ⑤호랑이강낭콩(200평)
⑨	①들깨(1200평), ②참깨(1000평), ③팥(400평), ④마늘(400평), ⑤땅콩(200평), ⑥목화(200평), ⑦고구마(100평), ⑧옥수수(100평), ⑨광주무(100평), ⑩녹두(100평). 그 외, 자주감자(50평), 토종배추(50평), 토종고추(5평), 가지와 오이 각 1평
⑩	①벼(31종, 2100평), ②콩(20종, 300평), ③고추(7종, 100평), ④오이(5종, 50평), ⑤가지(3종, 50평)

주: 응답자를 번호로 표현했으며(이하 동일), ⑨번은 풀무학교 전공부 교사이자 농민임. 따라서 토종씨앗 재배면적은 같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재배하는 면적임.

● 토종농사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GMO 등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반대하는 뜻에서’였음.
- 그 외 홍성에서 토종농사를 짓는 금*영 농민은 “자립적인 영농을 위해” 토종농사를 짓기 시작 했다.”고 응답

[표 2] 토종농사를 짓는 이유

항목	응답자	이유
① 자립적 영농을 위해	⑩	⑩자립이 유기적인 농사의 기본이기 때문
② GMO 등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반대하는 뜻에서	⑥⑨	⑥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어릴 적 씨앗관리를 중요시하던 추억에서 ⑨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불임 씨앗의 심각성, 살충제에 버무려진 씨앗에 위험성을 느껴서
③ 우리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①②③ ④⑤⑦ ⑧	①우리 씨앗이 없어지고 있고, 갈수록 씨앗 값과 더불어 농약, 비료 값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②사라져가는 토종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③매번 사서 심는 것이 아닌 대대로 심고 길러진 종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④씨앗을 후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⑤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개척하여 더 나은 삶과 소득을 위해서 ⑦종자가 기업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나라 종자기업의 70%가 외국기업에 매각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종자주권이 요구되는 상황 ⑧현실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토종씨앗은 중요함. 또한 토종씨앗은 식량주권, 종자주권, 미래농업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함

-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에 대해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10명의 농민 가운데 7명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임.
 - 전체적으로 보면,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향후 토종씨앗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해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표 3]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항목	응답자	이유
① 점차 확대될 것이다.	①②③ ⑤⑥⑧ ⑨	①GMO 등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안정성 때문에 우리 것을 많이 찾을 것 ③토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재배가 어렵고 판로가 불명확해 빠르게 증가하기보단 점차적으로 증가 예상 ⑤건강한 먹거리를 보급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⑥소비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변이되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가고 있음 ⑧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있고 토종씨앗 농사를 하는 농민의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 ⑨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
②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④	④GMO에 대한 불안감 증가,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 귀농인구의 증가, 주말 농장의 확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③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⑦⑩	⑦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음 ⑩미미한 변화만 있을 것임

- 향후 토종씨앗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제정’, ‘토종씨앗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가 우선이라고 응답
 - 위의 세 가지 필요한 사항 외에도 2명의 농민은 “충청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의 토종씨앗 채종 포 마련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함. 즉,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는 뜻임

[표 4] 토종씨앗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항목	빈도	이유
①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제정	③④⑥	③법률 및 법제도 속에서 채종포, 직불제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서 법제도 개선이 우선 ④조례 제정은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사항임. ⑥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농민들이 인식을 하게 됨.
② 토종씨앗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	①②⑦	①토종씨앗이 좋은 건 알지만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구체적 판매경로나 계약 등을 통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격도 일반 농산물에 비해 20%정도 높다면 농사짓기 어려워도 가격 보장과 판매보장이 된다면 토종농사를 많이 지을 것 같음. ②재배를 많이 해야 판매가 확대된다고 생각함. ⑦직불제는 농사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 여겨짐.
③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	⑨⑩	⑨토종씨앗 보존 활동들이 지역별로, 지역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지역의 씨앗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지역 내 소통이 중요함. ⑩저변 확대가 먼저이기 때문
④ 충청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의 토종씨앗 채종포 마련 및 보급	⑤⑧	⑤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임. ⑧중자의 보존 활동은 국가와 지자체의 농업 관련 기관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 따라서 농정기관과 농민이 함께 관련 활동 추진 필요

-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으로는 “정부가 GMO 농산물을 개발하거나 들어오는 것을 중단하고 토종씨앗에 대한 보존 및 육성 정책의 수립”이라고 응답
 - 다음으로 3명의 농민들은 “토종씨앗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또 3명의 농민들은 “직불제와 토종농사에 필요한 지원의 필요하다”고 응답
- 충남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농민들은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채종포와 토종씨앗관리소 설립, 씨앗도서관 설치 지원, 토종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토종자원에 대한 도 단위 DB 작성,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또한 각 시군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농민들은 “지자체에서 토종씨앗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토종씨앗을 발굴 조사해 이들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

[표 5] 중앙정부, 충남도, 각 시군의 우선 추진 사항

응답 농민	우선 추진 사항		
	중앙 정부	충남도	각 시군
①	토종씨앗 직불금 마련, 토종씨앗 알리기 광고	토종씨앗 사례 발표, 토종씨앗 단지 조성, 토종씨앗 판매소 설치	토종씨앗 보관소 및 종자 채취 생산 현장 마련
②	토종씨앗 직불제를 통한 지원	-	토종씨앗 종자 보유, 재배 홍보
③	GMO 개발 중단(토종종자의 오염 문제), 토종씨앗에 대한 보존 육성 정책 수립	토종보존 농가 육성, 토종종자 보존 네트워크 또는 중간조직 운영	각 시군별 토종종자 조사 및 조사에 의한 토종브랜드 개발
④	도정기계, 저온창고 등 토종농부에게 기본적인 것 지원	채종포 설치, 토종농사 농민이 운영 하는 씨앗도서관 지원	지자체 등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토종농산물을 선물로 활용
⑤	자금 지원이 순조로웠으면 함.	농민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바람	우리 씨앗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
⑥	토종이라 할 수 있는 씨앗 확보	토종 농사짓는 농민 확대 방안 강구	토종농사에 대한 조례 및 작목반 구성
⑦	GMO가 아닌 토종씨앗 보존 및 재배에 관심을 가져야 함. 토종장터를 더 확대하면 좋겠음	토종농사에 소요되는 토지, 농자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토종농사에 소요되는 퇴비, 농자재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⑧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가 토종 씨앗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부 농정기관(각 도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종씨앗의 중요성 고지 필요	토종농사 농민과 종자의 중요성, 대체 특화 작물로서의 토종씨앗에 대해서도 농정 차원의 지원책 연구	자발적 토종농사 농민과 토종종자에 대한 현황 파악
⑨	각 시도와 시군에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만드는 데 직접적인 협력과 도움을 주길 바람. 국민들이 GMO 문제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GMO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수입검역을 철저히 하길 바람	각 지역별로 씨앗도서관을 두고 지원했으면 함. 각 시도와 시군에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씨앗들을 찾아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토종씨앗 수집, 보존, 나눔 등이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필요함.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길 바람 토종씨앗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씨앗 관련 자료집이나 책 발간 등이 필요	
⑩	연구지원, 자원조사, 농민교육(육종 관련)	각 지역에 토종씨앗관리소 설립 지원, 도 단위 DB 작성, 교육 및 연구 지원	지역의 토종자원 조사, 체계적 관리

04 정책 제언

1. 토종씨앗 보존

- 충남도에서 토종씨앗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토종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필요
 - 첫째, 충남도내 토종자원에 관한 조사 및 정리
 - 토종씨앗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토종씨앗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음. 그래서 지역 내 어떤 토종자원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둘째, 충남도 토종자원의 보관에 대한 지원
 - 토종자원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한 토종자원을 보관하는 것은 더 어려움. 따라서 토종자원을 수집 및 보관하는 농가나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 셋째, 정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현재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중인 유전자원은 약 27만여 점이고 그중 토종씨앗(식량, 원예, 특용)은 약 52,182점임. 이들 토종품종을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및 증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지역의 토종 품종들은 지역에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2. 토종씨앗 육성 및 활성화

- 대부분 토종씨앗이 중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와 상품화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 받고 있음
 - 따라서 토종씨앗의 보존 못지않게 이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첫째, 상품화 가능 토종씨앗과 그렇지 못한 토종씨앗을 나누어 대응
 - 최근 들어 토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밀, 콩 등 일부 토종농산물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음.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렇지 못한 토종농산물은 분리해 대응책 마련
- 둘째, 토종농산물의 재배를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 토종농사는 재배의 어려움, 상품성 저하 등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쉽지 않음. 또한 현재 어느 정도 규모화도 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수집상의 관심 밖에 있음
 - 토종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는 현재 경남도가 실행 중
- 셋째, 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매촉진 실시
 - ‘locality(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뿌리가 있는 토종농산물을 로컬푸드 판매장의 전문매대에서 판매된다면 로컬푸드의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임
- 넷째, 교육과 학교급식과 연계한 활동 추진
 - 토종은 단순히 하나의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풍토를 간직한 자산임.
 - 따라서 이러한 토종씨앗과 농산물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이를 학교 텃밭에 심어 재배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다섯째, 토종씨앗과 토종농산물 나눔 행사에 대한 지원
 -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부여의 토종씨앗축제 외에는 이렇다할 나눔 행사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충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토종씨앗 나눔 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여섯째, 도시경관 조성 등 토종농작물의 다양한 쓰임새 개발
 - 토종농산물은 음식으로써의 가치도 있지만 환경과 경관 개선에서도 훌륭한 소재를 가지고 있음. 토종농산물 활용 텃밭 및 경관조성사업은 도시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토종자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마지막으로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연계한 토종마을 조성 추진
 - 향후 충남도 농촌체험관광과 농촌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및 농산물을 테마로 한 생산, 경관, 가공, 체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체험마을과 농촌체험농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함. 이를 통해 토종씨앗과 토종농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3. 비전 및 제도적 틀 마련

- 충남도가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비전 제시와 실천 가능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
- 첫째,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 기관별로 나누어 실행
- 둘째, 현재 각 시군 토종농사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충남도토종종자네트워크 모임을 민관협력 협의체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유지
 -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이후 충남도가 토종씨앗 및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
- 셋째, 토종농산물 관련 조례 수정 및 보완
 - 충남도의회는 2016년 9월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토종농작물 확대를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현 조례 내용에 덧붙여 향후 조례 개정 시 소득보전 직접지불을 위해 〈토종재배계획서 제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함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041-840-1206, kcpark@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6 전략과제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실태와 정책 과제 ”를 요약하고, 현 시점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임.

- 강순희. 2014. “한국의 GMO 반대 운동과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사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등. 『GMO를 반대하고 토종씨앗을 지키는 세계농민들의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90-94.
- 김은진. 2016. 전북도 토종씨앗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 김종덕. 2013. 생물다양성 위기와 슬로푸드운동의 대응. 경남대학교 인문논총 37: 49-71.
- 김효정. 2010. ‘토종씨앗지키기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완식. 2015. 국내외 종자산업의 현황과 GSP사업의 역할. 『Plant Biotechnology』 42: 71~76.
- 신지연. 2016. “한국의 토종종자 지키기 활동”, 충남연구원.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한일 워크숍』자료집(CNI 세미나 2016-006): 33-46.
- 안완식. 2009. “토종의 중요성과 보존 활동”, 괴산인재양성학습센터·흙살림. 『토종 기초과정』 자료집: 3-27.
- 윤성희. 2009. “유기농업을 위한 토종종자의 활용 방안”, 괴산인재양성학습센터·흙살림. 『토종 기초과정』 자료집: 28-50.
- 정만철. 2016. “왜 지금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말하는가”, 충남연구원.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한일 워크숍』 자료집(CNI 세미나 2016-006): 79-88.
- 황경산. 2013. 젠더 불평등과 세계 식량 체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식량주권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HT, Park KW. 2013. Challenge for the seed industry leap, 「Agricultural policy focus」 No.46,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